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17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16일(수)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 국내 운용사 대상 외화자산 위탁운용 포트폴리오 재편
- '양적 기반 조성'에서 '질적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 운용목표(안전성, 유동성, 수익성)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제고**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활용하고 있음
 - 당행은 2012년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 위탁 이래 **위탁 부문 및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위탁 부문 확대)** 2012년 **중국 주식** 운용을 **최초 위탁**한 이래, 2019년 **선진국 주식**, 2022년 **미국 종합채권** 전략에 이르기까지 위탁 대상을 넓히며 글로벌 투자 경험 축적을 지원
 - **(위탁 규모 확대)** 국내 운용사에 대한 외화자산 **위탁 규모** 또한 꾸준히 **확대**('12년 1.0억달러 → '25년 32.1억달러)
- 당행의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은 국내 운용사가 글로벌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해외투자 **운용 역량**을 능동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음
 - 당행의 지원과 더불어 최근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초기 정책 목표였던 '**양적 기반 조성**'이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내 운용사의 **운용 역량 고도화**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내 운용사 대상 위탁 운용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자 함

-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국내사 **해외주식 Passive 위탁**을 축소하되 해외채권 위탁을 확대하고,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이 대 폭 확대된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할 계획

* 단순 금리 전망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글로벌 거시경제 사이클 및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고도의 액티브 운용전략

- 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가 **운용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향후 **글로벌 플레 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향후 한국은행은 국내 운용사들이 **액티브**(Active)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운용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금번 채권 전략 확충에 머물지 않고, 향후 주식 부문 등에서도 **AI 기반 퀀트 전략** 등 국내사들의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의 국내 위탁운용 현황 및 개편 방안' 참조

문의처 : 외자운용원 위탁운용팀 팀장 김정훈(02-759-5212), 과장 조수현(5294)

E-mail : bokexmgt@bok.or.kr

공보관 : Tel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의 국내 위탁운용 현황 및 개편 방안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위탁운용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 및 국내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운용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당행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는 해외 투자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였으며, 최근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 급증으로 독자적인 사업 기반과 시장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양적 기반 조성'이라는 초기 정책 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규모 확대 위주의 양적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내 운용사의 실질적인 '운용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자 함
 -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축소된 선진국 주식 패시브 펀드에 대한 위탁 비중을 줄이고 채권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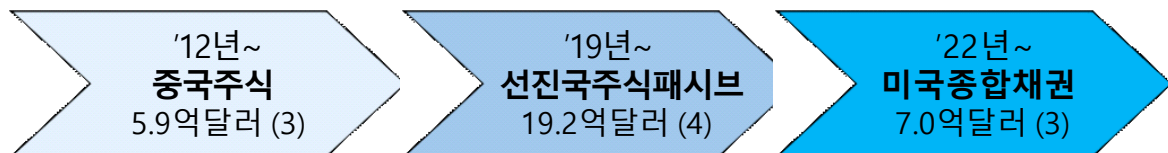
1. 한국은행의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 현황	1
2. 양적 기반 조성 목표 달성 평가	2
3. 국내 위탁운용 개편 방향	3
4.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 도입	4

1. 한국은행의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 현황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위탁운용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운용 역량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위탁 부문 확대) 당행은 **2012년**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 운용**을 최초로 위탁한 이후, **2019년 선진국 주식**, **2022년 미국 채권** 등으로 위탁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 포트폴리오 구성



주: 1) 위탁규모는 25월 말 위탁원금 기준. ()안은 위탁기관 수

○ (위탁 규모 확대) 12년 1.0억달러 → '19년 7.4억달러 → '22년 30.4억달러 → '25년 **32.1억달러**

○ (운용사 확대) 12년 2개사 → '15년 3개사 → '21년 4개사 → '22년 **5개사**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 추이

(억달러, 개, 기말기준)

		'12	'15	'18	'19	'20	'21	'22	'25	'26.7월
위탁원금		1.0	2.5	4.4	7.4	10.4	21.4	30.4	32.1	32.1
운용사 수		(2)	(3)	(3)	(3)	(3)	(4)	(5)	(5)	(5)
상품별 펀드 유형	주식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중국 선진국
	채권							US 종합 채권	US 종합 채권	US 종합 채권

2. 양적 기반 조성 목표 달성 평가

□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는 **해외투자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 급증으로 당행의 지원 외에도 **독자적인 사업 기반과 시장 자생력**이 확보되는 등 ‘양적 기반 조성’ 정책의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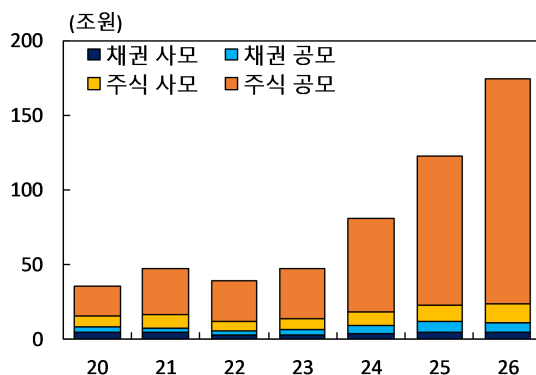
○ (글로벌 운용 인프라 구축)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투자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리서치, 리스크 관리, 결제 오퍼레이션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는 등 **정책 성과가 가시화**됨

— 당행은 ‘22년 이후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사에 대한 지원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국내사들의 **해외투자 운용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

○ (독자적 시장 자생력 확보)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 급증**에 힘입어, 당행의 지원 외에도 **독자적인 사업 기반과 시장 자생력**을 확보

— 개인 및 기관의 해외 주식투자 수요 확대로 **해외주식형 ETF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당초 당행이 목표한 양적 기반 조성은 민간 시장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충족**된 상황

국내 해외투자 펀드 설정액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순자산기준, 조원)

	'20	'21	'22	'23	'24	'25	'26월
주식펀드	27.7	39.8	34.2	40.7	71.6	110.8	163.0
공모	20.1	30.8	27.2	33.0	62.1	100.0	150.5
(ETF)	1.6	8.9	9.9	15.6	43.1	78.4	126.3
사모	7.6	8.9	7.1	7.6	9.5	10.8	12.5
채권펀드	8.0	7.5	5.3	6.3	9.2	12.4	11.1
공모	3.6	3.0	2.2	2.9	5.3	7.6	6.5
(ETF)	0.0	0.1	0.2	1.1	2.5	4.3	3.7
사모	4.4	4.5	3.1	3.4	3.9	4.8	4.6

3. 국내 위탁운용 개편 방향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위탁 규모 확대 위주의 **양적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내 운용사의 실질적인 '**운용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내 운용사 **위탁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자 함
 - (기존 위탁 방식의 한계) 현재 위탁 중인 해외주식 펀드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에 가까워, 고도의 운용 역량 축적에 제한적임
 - (위탁 자금 재배분) 민간 부문의 해외 주식투자 급증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축소된 **선진국 주식 펀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줄이고 채권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 단, 금번 국내사 위탁 비중 조정은 당행 외화자산 전체의 자산배분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체 주식 및 채권 비중에는 변동이 없음
 -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 도입)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하여 국내사의 **운용 역량 제고**를 유도
- 향후 한국은행은 국내 운용사들이 **본격적인 액티브(Active) 운용 역량**을 확충하여 글로벌 운용사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운용 개편 방향

<1단계> **운용이 용이한 전략 중심으로 위탁규모를 확대하며 양적 기반 조성** ('12~'26)



<2단계> **고난도 전략 지원을 통해 질적 역량 강화** ('26~)



<3단계> **본격적인 액티브(Active) 운용을 통해 글로벌 운용사와의 경쟁 유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도약

4.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 도입

- 한국은행은 '22년 해외 채권펀드 신규 위탁시, 국내 운용사의 운용 역량 등을 고려하여 투자 지역을 미국으로 한정하고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을 제외한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우선 도입한 바 있음
 - 반면, 이번에 도입하는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은 다수의 국가와 다양한 통화권의 채권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므로,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에 비해 운용 난이도가 한층 높은 전략임
 - 동 전략은 수만 개에 달하는 방대한 투자 대상 종목과 복잡한 거시경제 변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고도의 거시경제 분석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 확충이 필수적임
 - 따라서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 도입은 국내 운용사의 운용 역량을 확충하는 데 우위가 있는 전략이며, 향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채권 거래 중개 역량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을 운용하는 해외 운용사와의 직접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운용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용이해짐
- 한국은행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글로벌 종합채권 전략의 안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 업계의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

전략별 벤치마크 비교

	선진국 주식	미국 종합채권	글로벌 종합채권
대표 벤치마크	MSCI World	Bloomberg US Aggregate	Bloomberg Global Aggregate
국가 및 종목 수 ¹⁾	약 23개국 약 1,200개~1,300개	1개국 약 10,000개 내외	약 28개국 약 30,000개
거래소 여부	장내 거래	장외 거래	장외 거래
국내 증권사 활용	활용 가능	제한적 활용 가능	매우 제한적 활용 가능

주: 1) 국가 및 종목 수는 지수 리밸런싱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선진국 주식은 상장국가 기준, 미국 종합채권 및 글로벌 종합채권은 통화 기준